

원창희(부산상고1) 53회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원창희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8월 5일
5. 구술장소: 부산 사상구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20분 3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가난한 고시생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구술자 : 그때(1966년)만 해도 상당히 울산은 공업지역으로서 굉장히 발전하고 사회적 분위기들이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지역이 돼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괜찮았어요. [제가] 그래서 쪽 눌러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뒤에 우리 노무현 친구가 그때 울산 비료공장 공사현장에 아마 [일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대동의원이라는 울산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본인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간호사가 전화가 와서 ‘노무현이라는 사람 아느냐’ 해서 ‘아이코, 안다’ 고. 내 깜짝 놀래서 ‘어떻게 [연락] 했냐’ 니까 ‘지금 크게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 고 해서 제가 쫓아갔지요. 거기 갔더니 [무현이가] 얼굴을 전부 다 기부스(Gips)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말을 할 수가 없고 필담(筆談)²⁾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고시공부를 하다가, 하고 있는데 바람도 쓰일 겸 책값도 좀 벌 겸 해서 공사현장에 와서 이렇게 다쳤노라고.³⁾ 자기 형이 마침, 저하고 큰형⁴⁾이 국세청 시험 같이 친 입사 동기가 돼가지고 마침 부산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서 ‘영현이 형한테 연락을 좀 취해 달라’ 그래가(그래서) 제가 인자(이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관 전화로 해가지고 [입원했다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형님이 이불 보따리 같은 거 가져와서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상당히 자주 자주 병원에 [가서] 저도 하숙하는 사이가

1) 현재는 개성고등학교

2) 말이 통하지 아니하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에, 글로 써서 서로 묻고 대답함

3) 당시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초기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4장에 ‘노가다의 짝사랑’이란 글로도 실려 있다.

4) 노무현의 큰형 노영현은 3남2녀 중 맏이었다. 1973년 세상을 떠났다.

된 [거조]. 매일 퇴근하면서 병원에 들려가지고 필담 나누고 그래서 몇 주 지나서 기부스 풀고 퇴원하고 해서. 퇴원하는 날은 서울에서 그때 한양대학을 다니던 홍청섭이라는 친구가 마침 와 가지고 셋이서 울산의 시장통에 가서 선술집에서, 그때는 저희들이 술을 얼마만큼 마시지도 잘 모를 정도의 주량이었는데 그때 그냥 통음()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쯤 먹어야 내가 리미트(limit, 한계)인지 모르니까. 그걸 마시면서 이제 많은, 그때 정종을 마셨는데 많은 이야기들, 장래에 관한 이야기들, 지나온 이야기들, 가정에 관한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 같애요. 그리고 나서 하숙집에 가서 그렇게 셋이서 잤는데 밤새도록 제가 그 두 사람 토하는 거 그거 세숫대야 가지고 들락날락한 거, 아마 밤새도록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무현이가] 고향에 돌아가서 편지가 자주 왔는데, 그때 편지 말미에 언제든(언제나) ‘마옥당⁶⁾에서 무현이가’ 이렇게 붙여가 와서. 마옥당이라는 그 옥호(屋號)⁷⁾가 상당히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심심하고 하면 자기가 일상, 고시 공부하면서의 어려움, 무료함, 일상, 바깥소식, 이런 것들… 자기 나름의 생각 이런 걸 많이 편지로 보내주고 저도 답장을 하고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기록이 지금 하나도, 그냥 살다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요. 울산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고, 또 상대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뭐 고비마다 그렇게 서로가 만나게 되고 또 서로가 도우게 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판사 생활을] 그만하고 바로 [부산에] 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⁸⁾ 저기 부민동에. 옛날에는 부민동에 있었거든요. 개업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도 하고. 야,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해서 잘됐어요. 왜냐면 본인이 세무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것까지 여러 가지 [다른 변호사들이] 안하던 것까지 하니까 상당히 사건들이 많이 오고, 또 나름대로 고등학교 동문들이 각 회사나 각양각층에 주로 회계나 경리 사이드(side)부터 많이 깔려 있으니까. 또 그렇게 좀 거

5) 술을 매우 많이 마심

6) 노 대통령이 첫 직장 ‘삼해공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형님과 봉하마을 들관 건너 뺨산 자락에 지은 토담집. 마옥당(磨玉堂)이라는 이름은 당시 노 대통령 부친이 지었고 여기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7) 가게나 술집 따위의 장사를 하는 집의 이름

8) 노 대통령은 1978년 4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그만두고 1978년 5월 5일 부산 부민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

기에서 같은 값이면 도와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참 되게 바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로는 ‘야 내가 말이야, 부산에서 랭킹(Ranking) 오(5)위 안에 들어가는 변호사’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차도 사고. 그때 자가용이 포니(pony)차 나올 때니까 타고 뭐 아파트 남천동 아파트, 비치(beach) 아파트에도 마흔 몇 평, 사십(40) 몇 평짜리 하고. 그래가 그땐 참 우리가 식사도 자주 하고. 품 나게, 좀 품 나게 살았지. 그때 당시에 한참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칠십칠(1977)년도에 직장 그만두고 제조업을 뛰어들어가지고 한참 바쁘게 이렇게 쪽 하고, 자기는 뭐 이래 변호사 개업하고 이러니까는 인자 뭐 저도 이제 돈 좀 벌고, 자기도 벌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호기 있게 그래 잘, 애들까지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하여튼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만 해도 뭐 잘나가는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느 날, 어느 날 그냥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 같더라고⁹⁾. 이야기가 인자, 이야기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뭐... 조금 바뀌는 거 같았어. 어느 날 권[양숙] 여사 전화가 왔습니다, 나한테.

‘아이고 마, 상욱이 아빠. 지금 견호¹⁰⁾ 아빠가 무슨 일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보과 형사들이나 정보기관에서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미행하는 거 같기도 한데 좀 알아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데 물어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고 해서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좀 만나자. 니 요새 뭐 하노’ 이러니까 ‘야, 니는 알 필요 없다’ 해싸서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광안리 어디 횡집에를 부부동반으로 다른 친구 또 한 부부하고 해가지고, 저녁을 하자고 해가(해서) 그래가 이야기를 쪽해보니까 본인이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활동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쪽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할 수 있는 게 ‘야, 그 위험하다. 지금 겨우 인자 소위 말하자면 자리 잡아하는데, 야 조금 그거하면(접으면) 안 되겠냐. 그래 임마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뿐이 없죠. ‘계란 가(갓고) 바위 치기 아니겠나. 야, 니 한 몸 여기 던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철옹성이, 문이 열리겠냐.’ 그걸 가지고 자꾸 설득을 했는데 소주 한잔하고 탁 나오니까 그때 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야, 각자 인생 앞으로 가

9) 부림사건 변론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부림사건을 ‘내 삶을 바꾸었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적혀 있다.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容共)조작사건이다.

10) 노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를 말한다.

자’ 하더라고. 각자 인생 앞으로 가자해서 순간 ‘야, 이기(이거) 뭐 기분 좀 안 좋다.’ 내가 충심을 가지고, 성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각자 인생 앞으로 가자니까 기분이 좀 그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할 방법은 없고 지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노 변호사가] 아마 그때 대단한 각오를 하고, 누가 말린다고 해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그냥 지켜보고 잘 되기만 바랬는데.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진 게 노동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근데 그때만 해도 환경이라는 건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 근데 환경을 짚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제조업을, 공장을 하니까 공장을 제가 창원도 하고 양산에도 하고 [업종이] 기계, 금속 이래요. 노동, 환경에는 저하고 생각이 좀 반대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언쟁도 하고 ‘야 그거 아직 멀었다, 아직.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가 아직 안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래 만나면, 이야기 하다보면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좀 의견 충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환경이라는 데까지, 아 이것 참 벌써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근데 환경도 우리가 언젠가는 [보호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적으로 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쪽 보니까 ‘아 [노 변호사가] 상당히 앞을 빨리 많이 먼저 내다 보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놀라워요 놀랍고.

그래서 노동운동 한참하고 그 다음에 뭐 저 대우조선 그거, 결정적으로 이석규 사망, 그 부분에 삼(3)자 개입했다 해가지고 구속합니다¹¹⁾. 부산에 언론에서 내(계속) 떠들고 [검찰이] 영장청구 몇 번 해가지고 기각되고.¹²⁾ 인제 뭐 맘 즐기고 쪽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 [구치소에] 좀 들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자격 정지 [당하고]. 자격 정지된 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 내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야 내 인제 변호사도 못해먹게 됐는데, 야 앞에 살 일이 막막하다’ 그러니

-
- 11) 노무현 변호사는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및 노사 협상을 돕던 중 1987년 9월 2일 장례 방해와 노동쟁의 조정법상 3자 개입 금지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부산 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속적부심사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91명이 참여해 23일 만에 석방되었으나 10월 29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함에 이어 11월 6일 법무부는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 12) 구술자의 기억이 다소 혼재되어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변호사는 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에서 연행된다. 이날 경찰에서 송치한 노 변호사에 대해 부산지검은 하루밤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장검사 등 간부들을 동원, 부장판사를 법원으로 다시 나오게 하거나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 발부를 종용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까 내보고 ‘야 닉(너희) 회사에 좀 밥자리(일자리) 하나 좀 주라’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와서 할 일은 없지만은 내가 경비라도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내가 해주께, 온나’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본인은 순간적으로 좀 절실했다, 좀 충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하지 말고’ 그때 이제 한참, 총선이 그때 있는 지 얼마 안돼가 언론에 그냥 디제이(DJ, 김대중) 워, 삼(3)김¹³⁾들이 다 [연금()]해제되니까, 해금되니까 막 당 만들고 해가지고 한참 민주화 바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래하지 말고’ 밖에서 육십(6·10)항쟁 하고, 총선 이런 거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하지 말고, 밖에서 싸울 게 아니고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거를 메시지(message)를 던지고 거기 부딪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니까] ‘그래 그거 뭐?’ 그러기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해라,’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네 ‘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내가 볼 때는 길거리에서 맨날 싸우거나 할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제도권 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랬더만은 [노 변호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하여튼 우이뒤든(어쨌든) 간에 전화가 왔어 또. ‘야, 내가 국회의원 함 나가기로 했다.’ ‘그래, 어디로 하기로 했냐’ 하니까 그건 없고 그냥 부산[이래요]. 언론에서 나오는 게 ‘동구에는 허삼수¹⁴⁾가 최고 강자니까 그건 전부 다 피한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이럴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동구에 노무현 나온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자기가 남천동 사니까 남구 [출마한다고] 이리 생각했거든. 남구나 안 그러든(안 그러면) 부산상고가 있는, 소위 말하면 동문들 켈(제일) 많은, 학교가 있는 부산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구라고] 언론에 나오데. 그래서 내 전화 해가지고 ‘야 니 우짜냐’ 이라니까 ‘야 씨, 동구에 [나]갈란다’ 이라는 거예요. ‘동구에 마, 그게’ 그때 저도 그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웃음] ‘동구에 그게 해가(출마해서) 되겠냐. 힘든데, 와(왜) 힘든 싸움을 할라 그러냐’ 제가 말렸더니만은 야 그 참, 본인이 한 이야기가 그래요. ‘야 켈센 놓하고 붙어야[지]. 어차피 붙을 바에야 켈센 놓하고 붙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가 동구를 [출마]했는데, 그때 참 저희들이 뭐 선거라

13) 70년대 이후부터 한국 정치계의 거물로 불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을 일컫는 말.

14) 제5공화국 초기 허문도, 허화평과 함께 이른바 3허(Three 許)로 불리던 전두환 대통령의 핵심 측근.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로 부산 동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는 거 처음 접해봤고 그리고 정치적인 행사 이런 걸 경험 못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부산상고] 동기회 마침 회장을 맡고 있고 이래서, 그러가 동기생들 다 연락하고 이런 저런 모금도 하고. 그 다음에 한게... 어쨌든 돈도 좀 모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하는 거 이것도 사람도 좀 모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막 사십(40)대 초니까 한창 빨빨(팔팔)할 때니까 친구들이 돈 내라카면 돈도 잘 내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자기 포켓(pocket)도 잘 털고 해가(해서) 상당한 돈도 좀 모으고. 또 그 다음에 다들 직장생활이나 이런 게 바쁘니까, 낮에는 다들 바쁘니까 퇴근 이후에 삼삼오오 해가지고 동구 전 지역을 포장마차니 뭐 그 다음 구멍가게 이런 데 가서 그냥 뭐 소주 마시기. 소주 마시면서 막 그냥 허삼수 욱하고, 노무현 좋다 뭐 어떨다 이런 거만 [웃음] 계속한 거야 우리는.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참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를] 도우고, 심지어 그때 막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유세차량 가고 하든 부산진 시장 같은 데 지나가는 막 유세차량에 우릴 따라다녀, 보면. 상인들이 말 이야, 돈 그거 이렇게 그냥 차에다 이래 얹어주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아, 참 괜찮다. 야, 이거 되겠구나’ 이랬는데. 하여튼 위에 됐든 간에 그때는 밤새도록 수기()로 발표하니까 부산중학교에서 했는데, 강당 체육관에서 했는데. 뜬 눈으로 그냥 그거 지켜보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새벽에 동틀 무렵이 돼가지고 거진(거의) 이게 윤곽이 나왔는데. 야, 그때 참 그 기분들이. 야 이거 참, 내가 된 거 같은 기분에 그냥 아주 참 좋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 때니까 사실 내가 회사가 양산에 본사가 있었는데 내한테 무슨 정보과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겁도 주고 이라더라고. 선거운동 한다고. [웃음] 못하게 하고. 요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당시는 거기(그게) 통하니까. 어떻게 다들 그런 거 알고. 그래서 내가 좀 아는 형사한테, 간부 경찰관이고 해서 내가 함(한번) 보자 했다. ‘당신 같으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아니다) 이거야. 공적으로 내가 지금 우리 동기회장인데 내가 그러면 안 나서면 그 우이 되는 거냐’ 이거야. ‘내가 법에 위반되는 짓은 안한다. 법에 위반되는 짓은 안하는데, 내가 법에 위반되는 짓을 하면 당신들이 잡아가든지 그건 모르겠고. 위반되는 짓은 안하고 나는 친구 도운다’ 그래 이야기해가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희망도 있고 좀 재밌은 거 같

애.

■ **구술자 주요이력**

1947. 경남 거제 출생

1966.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4. 동아대학교 학사

1981.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67. - 1977. 국세청 근무

1977. - 1993. 창영금속 (주)오너가공 등 금속제품 제조 및 기계제조업 경영
(양산, 창원 공단)

2001. - 2002.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시 부산상고 총동창회 총괄
부산 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부산지역위원회 고문 (2016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이다. 졸업 후 동기 노무현이 울산에서 막노동을 하다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난다. 그때부터 고시공부를 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계에 입문,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상고 총동창회를 총괄하며 부산 선대본부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 주요 시기마다 있는 힘껏 도와준 죽마고우다.